

연중 제2주일

제1독서 : 이사 62,1-5
제2독서 : 1고린 12,4-11
복 음 : 요한 2,1-11

순정이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요한 2,5)

강론

소리

새겨 읽는 이야기

한국판 포청천(?)

김진소 신부/호남교회사 연구소

건강을 잃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한다. 사경을 헤메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감나는 말이다. 사람의 목숨은 그렇게 절대적인 것이다. 그러나 살아 있다고는 해도 죽은 것만 못한 사람들이 있다. 사회로부터 사람대접을 못 받고 남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땅에 천주교가 들어오던 때 천민과 여자의 신세가 그랬다. 그래서 당시의 제도와 윤리를 앞장서 지켜오던 지도층의 지식인들조차 세상은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지식인들은 천주교에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까닭을 알았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님이 사람의 부모됨을 알았고, 그 어른이 얼마나 자식을 아끼고 사랑했던가, 자식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물을 다 갖춘 연후에 자식을 낳으신 것도 알았다. 부모의 천성이 그렇듯 자식도 숨이 끊기는 날까지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도록 운명지워졌다는 것도, 하늘님의 자식인 사람은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다는 것도, 하늘님의 모습을 닮아서 그 존귀하기가 제2의 하늘님인 것도, 사람의 위치가 하늘님만큼 높다는 것도, 부모로부터 빌린 선물인 내 몸이 있는 한 부모이신 하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도 알았다. 그 뿐인가, 사람의 허물을 탓하지 않고 사람의 행복을 걱정하며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가 하늘님의 몸인 사실을 알았을 때 사람들은 가슴이 벅차 할 말을 잃었다.

전통사회의 낡은 제도와 윤리는 천주교의 믿음을 받아 들일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의 가치와 새 삶의 길을 선택한 신앙공동체는 사람을 하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고 받들었다. 백정 출신인 황일광은 신앙공동체를 만나자 여기가 바로 천당이라고 탄성을 질렀다. 믿음은 천출인 황일광의 생명의 알맹이를 하늘님의 생명으로, 저주의 생애를 축복과 기쁨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다. 믿음의 사람들은 낡은 질서와 가치에서 해방된 자유인들이었다. 신앙공동체에서 보면 사람을 하늘님으로 존경하고 대접하며, 사랑하지 않는 제도와 윤리는 주검이었다.

가나 혼인 잔치의 이야기를 읽으며 한국 초대 신앙공동체를 새롭게 회상한다.

‘판관 포청천’이 우리 텔레비전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 그냥 무협지의 한 종류이려니 하고 심심풀이 삼아 시청을 했다. 그러나 그런 평가는 잘못되었음을 곧바로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그 시청률도 이제는 40%를 육박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것이 곧 인간 양심의 모습인가!

판관 포청천은 중국 송나라 인종 때 사람이다. 그 실제가 어쨌던, 극중에서 그는 작은 민원 하나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온갖 고뇌를 다하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를 사로잡는다. 그리고 그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고, 또 사사로운애도 치우치지 않는 의연한 모습으로 공무를 수행하여 시청자의 박수를 받는다. 황제나 황실에 대해 말할 때에는 의례껏 신하로서의 예의를 다하면서도 막강한 권력에 굴하지 않고 일을 처리한다.

포청천이 소개될 때, 우리 나라의 상황은 온갖 부정과 부조리가 들춰져 세상 살 맛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12.12 공소시효 만료 시기에 대한 헌법소원의 귀추가 궁금하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 결정이 해를 넘기고, 그러다보니 “역시나”였구나 하는 허탈감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한 해가 넘어갔다.

그런데 보도에 의하면, 대통령 재임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쪽으로 헌법재판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한국판 포청천을 대하는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기쁘다. 아니, 새롭게 희망을 갖는다. ☐



사람은 누구나 똑같다.

성서교실 47

“저를 아우로 여기시거든 제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창세 33, 1~20)

이 과의 이야기는 야곱이 그토록 마주치기를 두려워했던 형 에사오와의 상면이 의외로 형의 관대한 용서와 따뜻한 형제애를 확인하는 만남으로 귀결된다. 야곱의 비굴하리만큼 지나친 저자세와 에사오의 단순하면서도 진실한 환대가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극적인 두 형제의 화해도 한계가 있는 듯 그 동안에 쌓인 갈등의 골이 깊어 두 형제는 서로 자기 갈 길을 찾아 나선다.

야곱은 왕 앞에서 신하가 취하는 종속자의 예를 갖추어,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에사오를 맞는다. 그러나 에사오는 야곱을 보자 순간적으로 뛰어나와 복을 끌어안고 용서의 표시로 입을 맞추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취한 야곱의 태도에 비해 에사오의 태도는 자연스럽고 진실하다. 야곱은 그 동안 하느님의 은혜로 자손이 번영했음을 밝히고, 가족들도 도착한 순서에 따라 에사오에게 인사한다.

이어 에사오는 야곱에게 그의 가족떼가 나뉘어져 온 이유를 물었다. 야곱은 이 가족들이 에사오의 마음에 들기 위한 선물임을 밝힌다. 여기서 에사오를 칭하는 “형님”이라는 표현은 원문에 “내 주님”으로 되어 있다. 에사오에게 극존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에사오는 야곱의 선물을 정중하게 사양한다. 사실 400명의 부하를 거느릴 정도면 에사오의 부귀도 대단했을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재산이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신 덕분임을 강조하면서, 꼭 받아주실 것을 간청한다.

야곱의 간청에 못 이겨 에사오는 선물을 받아들인다. 이로써 에사오는 야곱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외적으로 드러냈고, 야곱도 형의 용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에사오는 야곱에게 ‘세일’로 함께 떠나자고 하였다. 그곳에서 같이 살 것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럴듯한 핑계를 대며 에사오에게 먼저 떠나시라고 청한다. 그러자 에사오는 부하들 중의 일부를 남겨 야곱의 가족을 보호하도록 해주겠다고 한다. 야곱은 이를 단호하게 사양한다. 형의 제안을 두 번씩이나 거절하는 것으로 보아 야곱이 형과 더불어 ‘세일’에서 살 의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에사오는



야곱과 에사오의 화해하는 장면

야곱의 말을 믿고 먼저 떠났다. 그 이후 창세기 저자는 에사오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에사오가 떠난 후 야곱이 취한 여행길은 세일과는 전혀 반대 방향이다. 야곱이 도착하여 짐을 풀 곳은 초막이라는 뜻을 지닌 ‘수퓏’이라는 도시인데, 수퓏은 야벳에서 북쪽으로 2km 떨어진 브니엘과 요르단강 사이에 위치해 있는 곳이다.

수퓏에 정착한 야곱의 생활은 아직도 반유목민 생활이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 마을에 도착하여 그 앞에 천막을 쳤다.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의 하나이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부족들을 전부 불러 모아 종교회의를 열고 야훼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장엄하게 서약하도록 했다. 야곱은 세겜의 유지 하물에게서 은 백 냥을 주고 천막 칠 땅을 샀다. 하물에 대한 언급은 뒤따라오는 이야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이스라엘의 하느님 엘”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엘 신도 이 지역에서 섬기던 가나안의 신 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가리킨다.

우리는 야곱과 에사오의 이야기에서 용서를 청하는 자보다 용서하는 자의 인격이 훨씬 우위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박승근 피부과의원
 진료과목 : 피부과 · 비뇨기과
 박 승 근(다미아노)
 김 종 화(실비아)
 효자삼거리 전북은행 앞
 ☎ 225-3858

시상·팔상 체질 감별
 <태양, 소양, 태음, 소음>
 권 재 갑(다두)
 정 원 미(클라우디아)
 중화산동2가 파출소 맞은편
 ☎ (0652)224-6207~9
 황명사신건강회

피아노 현금가 무이자 할부판매
삼익피아노 코아특약점
 디지털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및 각종 악기
 코아백화점 3층
 ☎ 86-1181, 80-1309

금·은·보석·시계
다 이 아 나
 · 결혼예물 우대, 개조직 환영
 김 윤 종(베드로)
 박 명 자(마리아)
 서도프라자 1층 104호
 ☎ 222-3274~5

소양 성당 봉헌식을 앞두고

초대합니다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1994년의 뒷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때라고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쉽게 느껴질 리 없겠지만, 특히나 작년 한 해는 더욱더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계획부터 역지였고 또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여겨졌던 소양 성전의 봉헌을 이제 눈앞에 두게 되었으니,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 모두가 신자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정성으로만 채색되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곳은 우리 교회의 역사가 깊은 곳이기때, 우리의 신앙 선조들이 살았고 또 성인들을 배출한 곳이기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주 지역 모든 교회의 근원지이기때 성전을 세워야 한다는 신자들의 사명감이 있었기에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이곳 소양 성전의 봉헌을 결정할 수 있었고 이제 그 축성식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저희와 같이 성전 봉헌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정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으로 지어진 이 자랑스러운 성전 봉헌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와 정성에 감사드리며 또한 오시는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일시: 1995년 1월 22일 오후2시30분

장소: 완주군 소양면 황윤리 소양 천주교회

교구 소식

※ 일치주간: 1월18일~25일 각 본당에서 '그리스도교 제일치를 위한 기도문'을 바칩니다.

1. 故 임복만(바오로) 신부 1주기 추도미사: 1월 16일(월) 오전10시30분 중앙 성당
2. 소양 성당 봉헌식 미사: 1월 22일(일) 오후2시30분 주례-이병호 주교
3. 사목교서 연수: 1월22일(일) 오전10시 가톨릭센터 3층 강당, 대상-남전주, 북전주, 정읍·김제 지구본당 사목위원
4. 전주지구 성서교실 개강: 2월10일(금) 전동 성당 교육관, 바오로서간, 요한묵시록 강의 문의-교구 사목국 85-0041 <많은 분들의 수강 신청바랍니다>
5. 신학생 3·4학년 현장생활 체험 후 세미나: 1월19일~22일 서울 예수마을 피정의 집
6. M.E 53차 주말: 1월20일~22일 천호 피정의 집
7. 혼인강좌: 1월22일(일) 오전9시30분 가톨릭센터, 회비-각 10,000원
8. 빈첸시오 전주교구 중앙이사회 정기총회: 1월21일(토) 오후2시 이평 빈첸시오의 집
9. 레지아 1단계 기사교육: 1월16일~18일 오후3시 천호 피정의 집, 교육비-60,000원 <간부학교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할 수 있습니다.>
10. 전주 파티마의 모후 레지아: 1월15일(일) 오후2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11. 교도사목후원회 월례미사 및 정기총회: 1월17일(화) 오전10시30분 가톨릭센터 3층 회의실 <故 임복만 신부 1주기 추도미사 관계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전주 제14차 선택 주말: 2월10일~12일 천호 피정의 집, 대상-미혼 남녀
회비-38,000원, 접수·문의-85-3637(조형식)

※ 축! 영명: 17일(성안토니오) 김진룡, 최용준 신부님

요심이 (1116) 김병오



치질 전문 치료
서울의원
레이저로 치질 무통 수술,
수술 후 무통으로 활동 가능
전주시 덕진동 덕진광장 앞
원장 이 상 재(베네딕도)
☎ 75-0550

한국외방선교회 서품식
· 일시: 1월 18일(수) 오후 2시
· 장소: 서울 명동 대성당
· 사제품: 김순경(사도요한)
수원교구, 오산성당
· 부제품: 김동주(바오로)
부산교구, 남산성당

동서로 삼익피아노
· 피아노, 교회용 전자오ργαν, 관현악기
· 각종 수입악기 판매
· 악기구입, 음악 교육 및 연주 지도 상담
동서 관동로 다가교 입구
김 태 우(알풍소)
☎ 88-7717-8

이 엠 학원
〈초·중·고〉
김 해 근(마티아)
동아아파트 앞, 육교 옆
☎ 61-0909, 466-0909

'95 유치원생 모집
호남웅변미술종합학원
유 병 철(베드로)
박 경 애(안젤라)
호 남(제일예식장 뒤) 252-7313
새호남(전주역 앞) 243-1413
효 자(삼천쌍용APT 앞) 221-8331

성신당 한약방
이 흥 재(요셉)
우아동 기린중학교 정문 옆
☎ 245-9787~8

현대 미용학원
미용과·피부과
메이크업·분장과
김 금 순(테레사)
전주시 진북1동 373-3
☎ 86-2211, 254-3003

■ 남전주시구 본당소식 ■

*** 노송동** 사제관 82-9663 사무실 82-9661 주임신부 박진량
수녀원 82-9662 사목회장 김동주

*** 서화동** 사제관 84-8307 사무실 86-4929 주임신부 이종원
수녀원 84-2276 사목회장 민병부

- ◎ 연중 제2주일
- ◎ 주일헌금 및 교무금 납부에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사목회 사회복지분과 부장 임명 : 박일천(요한)
* 사목회 부회장 정임
- 2. 초등부 교리교사 임원명단 : 회장-손정훈(스테파노)
부회장-박미영(수산나)
총무-정원이(안나)
- 3. 중·고 교리교사 임원명단 : 회장-추정엽(안타모)
부회장-이인영(수산나)
총무-김현아(세레나)
- 4. 구정활동 위령미사 예물접수 : 30일까지 사무실
- 5. 사목위원 사목교서 연수 : 22일 전 10시 가톨릭센터
- 6. 전입을 환영합니다.
· 박영기(빈첸시오)가정-기린봉 1반 ☎ 88-4511
- 7. 모임 : ①대건회(오늘 장엄미사 후)
②여성연합회(17일 어머니미사 후)
③제수형제회(21일 후 2시)
④우리아(22일) · 천사의 모후-장엄미사 후
· 자비의 모후-후 2시
- 8. 금주 청소 : 중노19, 20반
차주 청소 : 중노21, 23반
- 지난주 봉헌금 : 1,083,460원 □ 교무금 : 2,136,000원

- 1. 사목회 : 17일(화요일) 저녁 8시 참석바랍니다.
- 2. 반장회 : 차주(29일, 일요일) 공식미사 후에 있습니다.
- 3. 울뜨레아 : 19일(목요일) 많은 참석바랍니다.
- 4. 교무금 신일 : 아직까지 교무금 신일을 하지 않으신 분은 접수 바랍니다.
- 5. 사무원 모집 : 영세한 지 3년 이상 컴퓨터 가능한 자
구비서류(교직사본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자필이력서 1통)
- 6. 설날 대축일 미사 : 새벽 6시,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위령미사 예물 접수합니다.
- 구유헌금 : 442,690원 □ 봉헌금 : 1,024,000원
- 교무금 : 1,657,000원

*** 복자** 주임신부 86-3453 사무실 86-3455 주임신부 정승현
보좌신부 86-3032 수녀원 86-3454 보좌신부 장상호
사목회장 황길평

*** 전동** 주임신부 81-0098 사무실 84-3222 주임신부 김봉희
보좌신부 82-7245 수녀원 82-9234 보좌신부 이완재
F A X 82-6232 유치원 84-8347 사목회장 이명형

- 1. 사목회임원 사목교서 연수 : 22일(다음주일)
오전 9:30~오후 4:00
- 2. 초 축성 : 제대용 초와 가정에서 쓸 초를 축성하오니 수녀님께
신청바랍니다.(초 축성일 2월2일)
- 3. 구정 활동 위령미사 봉헌 : 먼저 가신 선영들을 위해 정성드려
봉헌합니다.(구정미사 31일(화) 새벽 6:00, 아침 10:30)
- 4. 95년도 교무금 신일을 아직 안 하신 분은 사무실에 신청바랍니다.
- 5. 성우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6. 부녀회 : 19일(목) 오전 10시
- 7. 최 아녜스 수녀님 영명축일 : 21일(토)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8. M.E. 제53차 주말수강 : 20일(금)~22일(일)
이상은 율리아노, 김순영 아녜스-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당 청소 : 21일(토) 바다의 별Pr. 자비의 모후Pr.
금주 전례 : 해설-유두석, 독서-신태섭 부부,
봉헌-유덕열 가족
차주 전례 : 해설-조유래, 독서-문금철 부부,
봉헌-김수복 가족
- 지난주 봉헌금 : 655,220원 □ 교무금 : 702,000원
- 감사헌금 : 100,000원

- ◎ 연중 제2주일
- 1. 금주 : ①바비의 성모 꾸리아(후 2시)
②청년회(후 8시)
- 2. 여성 48차 꾸르실료 수료 : 박화영(루갈다), 채순님(테레사)
엄혜련(올리아)
- 3.故 임복만(바로로) 신부님 1주기 추도미사
· 16일(월) 오전 10시30분 중앙성당
- 4. 레지아 1단계 기사 교육 : 16일~18일 천호 피정의 집
- 5. 성화회 : 16일 오후 6시
- 6. 성모회 : 17일(화) 오전 11시
- 7. 초등부 6학년 졸업기념 등반대회 : 18일, 장소-계룡산
- 8. 차주 : ①혼인강좌(전 9시30분, 센타)
②교무장 사목교서 연수(전 10시, 센타)
③성마리아 꼬미시움(후 2시)
④소양성당 낙성식(후 2시30분)
- 9. 돈보스코회 임원 개편 :
· 회장-김정택(마테오) · 총무-조용연(바로로)
· 재무-이명희(요셉)
· 감사-양종민(다마스) 안현옥(모이세)
- 10. 설날 활동 위령미사 접수 : 29일까지
- 지난주 봉헌금 : 2,119,670원

*** 상관** 사제관 85-6654 사무실 85-6652 주임신부 한봉섭
수녀원 85-6653 사목회장 양주태

*** 평화동** 사제관 85-6979 수녀원 87-0229 주임신부 이재후
사무실 83-8245 F A X 82-6686 사목회장 감상근

- ◎ 오늘은 연중 제2주일 ◎ 일치주강 : 18일(수)~25일(수)까지
- 1. 성가대 정기총회 : 공식미사 후
- 2. 사목교서 연수 : 22일(다음주일) 오전 10시, 가톨릭센터
- 3. 예비신자 교리 : 2월 둘째주일부터, 예비신자 봉헌하세요.
- 4. 예수 성심 가정방문 기도 : 원하시는 가정, 신청-사무실
- 5. 설날 활동 위령미사 예물 접수 : 사무실
- 6. 제대꽃 봉헌 : 하대중-2만원 7. 제대초 봉헌 : 2월2일(목) 접
수-사무실 8. 금주 청소 : 순교자의 모후Pr.
- 9. 차주 청소 : 모든 성인의 모후Pr.
- 10. 감사 : 에령회 특별봉헌-안 마리아 씨 상가, 김요셉 씨 상가,
이요셉씨 상가-각 10만원.
- 11. 금주 전례 : 해설-우경숙, 독서-①한동욱 ②이석남
봉헌-김종석씨 부부
- 11. 차주 전례 : 해설-김미남, 독서-①양주태 ②송정자
봉헌-안복성씨 부부
- * 가톨릭이란 말은?
우리 천주교회의 세계적인 공용어가 곧 "가톨릭"입니다. 그 어
원은 라틴어 "Catholic"이라는 형용사로서 뜻은 "보편된, 공범된"
이다. "이 땅에서 저 땅 끝까지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까닭에, 또한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지식을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다 포함한
교리를 가르치는 까닭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왕, 시민, 학자, 무
식한 자 등 모든 사람을 참다운 신앙으로 이끄는 까닭에 그 이름을
가톨릭이라 한다."
- 지난주 봉헌금 : 373,450원 □ 교무금 : 611,000원

- ◎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고린도 12, 7).
- 1. 사목교서 연수 : 다음주일 전 10시 센타 각 부서장 의무참여
- 2. M.E 53차 강습회 : 20~22일 김대현·하화자 부부, 최병남·
송정순 부부, 기도 부탁드립니다.
- 3. 성소 후원의 날 : 오늘 공식미사 후, 매 미사 전후 회비납부
- 4. 가정 방문 : 17일 전 9시 14-2, 19일 후 2시 14-3,
20일 전 9시 14-4
- 5. 설 명절 떡가래 판매 : 25일부터
- 6. 교도소 후원회 월례미사 : 17일 전 10시30분 센타 3층
총대리 유장훈 신부 집전
- 7. 회의 : ①임마누엘, 한빛회-오늘 공식미사 후 ②성모회-18일
어머니미사 후 ③청년회-오늘 저녁미사 후 ④울뜨레아, 송송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 8. 혼인강좌 : 다음주일 전 9시30분, 센타, 회비-각 만원
- 9. 탈삼미사 : 21일 전 11시, 오성기 신부 모친 김수산나, 마우리
- 10. 빈첸시오 총회 : 21일 사회복지회 임원 의무 참여
- 11. 전입을 환영합니다 : 코오롱APT 신영숙(모니카) 12/1501 ☎225
-5994 최안숙(테레사) 8/502 ☎225-5904 김광재(하상 바오
로) 9/1203 ☎224-2841 김정수(요한) 12/904 ☎222-2269 최
문자(사라) 2/905 ☎225-6322 우성APT 김주남(마지아) 1213
호 ☎82-5393

성서교실 개강 : 2월 10일(금) 전동 교육관, 바로로 서간·요한목시록 강의, 수강신청 접수중